	鐵製鉸具		二
	鐵製鐙子		二
	鐵心銀張鞍輪		二
	鐵製鞍輪		一
其他	치아	一	
(二點)	鐵器片	一	

都合 一〇一點

以上의 古墳의 特色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墓槨이 主槨과 副槨으로 區分되어 있고 이것이 長方形으로 配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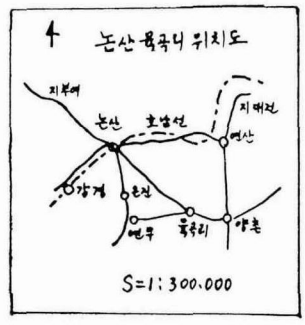
둘째로 金製耳飾、목걸이、金銅製冠飾 銙帶 等이 出土되고 또 黑漆地에 朱漆龜甲紋으로 裝飾한 木棺을 使用하였다.

세째로 副葬品을 通하여 當時의 生活樣相과 文化發展相을 짐작 할 수 있다.

論山 六谷里의 百濟古墳과 出土遺物

姜 仁 求

論山郡 可也谷面 六谷里는 論山에서 東南쪽으로 一二*km* 쯤 떨어진 可也谷面의 所在地이다. (圖1) 古墳이 發見된 곳은 面所在地에서 다시 東南쪽으로 八〇〇*m* 쯤 가면 六谷里「여술」部落이 나타나는데 이 마을의 뒷산인「단두리」재의 南斜面中턱에서 發見되었다. 이「단두리」재 南斜面에는 濟百時代의 古墳이 數十基 密集되어 있었으나 거의 모두 破壞되고 現存하는 것은 不過 2·3基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 調査하게 된 古墳은「여술」部落에서 다을 뒤 山의 傾斜面을 砂防工事中 七三年 五月 二五日에 可也谷面 江淸里 一七〇番地 居住 權亨龍氏에 依하여 發見되고 그 날 午後에 發見된 土器 11點을 持參하고 扶餘博物館에 申告하여 왔다. 申告를 接한 後 筆者 等은 文化財管理局과 論山郡에 收拾에 對한 연락을 取하고 二六日에 徐聲勳 學藝員과 함께 現地調査를 實施하였고 論山地方에서는 처음 發見된 百濟式石室墳이라는 點에서 報告하여 두는 것이다.



古墳은 前記 한 바와 같이「단두리」재의 南斜面에 位置하고 있는데 砂防工事로 斜面을 60度程度의 急傾斜로 깎아내렸고 그 急傾斜의 中턱에 매달려 있었다. 古墳의 羨道蓋石은 工事中 無心히 分離하여 斜面 아래에 굴러 뜨렸고 遺物들은 이미 引出한 後였다.

古墳은 山에서 흔히 發見되는 自然石으로만 築造한 石室이었으며 內部에는 沈澱된 粘土가 三〇*cm* 두께로 쌓여 있었다. (圖2)

古墳의 封土는 워낙 傾斜面에 位置한데다가 漸次 山麓을 깎고 집들을 짓는 바람에 더욱 急傾斜가 되어서 古墳 위에서 흘러 내린 흙으로 덮여 封土의 形態는 全혀 찾을 수가 없었다.

石室은 長軸을 正南北方向을 取하고 있으며 長方形인데 長이 二四二*cm* 幅 一二五*cm* 이다. 壁體와 天井 모두 自然石으로 築造하였는데 東壁은 長 四〇*cm* 高 四〇—五〇*cm* 의 다듬지않은 돌로 第一段을 놓고다시 그 위에 좀 작은 돌을 올려놓아 壁體를 만들고 있는데 西壁도 대체로 東壁과 同一한 樣式이다. 壁의 高는 大略 八〇—九〇*cm* 이고 그 위에 二五×二五*cm* 의 돌을 한줄로 놓아 斜面을 만들고 그 위에 自然石板狀石 五枚를 올려 놓아 天井을 構成한 이른바 平斜天井式石室①을이 루었다. 北壁은 第一段에 三個의 돌을、第二段에는 二個石、第三、四段에는 一個의 長臺石을 놓았는데、第二段부터는 그 위에서 부터 漸次 체감하는 式으로 하여 대체로 梯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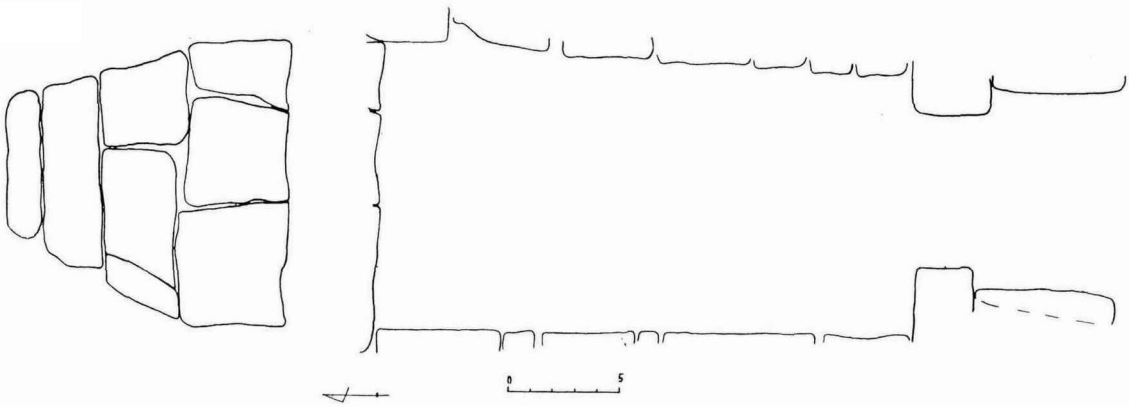


圖 2. 論山 六谷里 古墳實測圖

을 이루었는데 天井이 平斜式이며 北壁은 반드시 凸形을 이루는데 이곳에서는 斜面이 過長되어 있어 오히려 凸形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自然石을 그대로 다듬지 않고 使用한 데서 오는 제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凸形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北壁의 高는 一二四cm 底下部幅 一二五cm 上端幅 58cm이며 따라서 天井 高는 北壁과 같은 一二四cm이다.

羨道는 玄室 南壁의 中央에 달아서 設置하고 있는데 長이 六一cm 幅은 가장 넓은 곳이 九四cm이다. 羨道의 東西兩壁은 板狀形自然石을 一壁一枚씩 直立하여 壁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蓋石을 亦是 1枚로서 올려 놓은 斷面이 凹形이다. 이 形은 扶餘地方의 어느 石室에서나 볼 수 있는 樣式이다. 高는 八三cm 程度이다. 玄室과 羨道 사이에는 幅이 三五cm 되는 一個石을 羨道의 幅보다 좁게 안으로 들여 놓아 門枋石을 만들었으며 따라서 玄室 入口幅은 六八cm이고 이 곳과 羨道入口에 各各 板狀石으로 閉塞石을 直立시켰던 것으로 보이나 調査時에는 引出해 내어서 正確한 實測을 할 수 없었다.

玄室과 羨道內에는 위로부터 沈澱된 粘土가 30cm 두께로 쌓여 있었으며 土器 等 遺物은 이 土層에서 發見되었다고 한다. 바닥은 주먹 크기의 礫石을 一五cm 두께로 다졌으며 玄室壁과 天井 羨道에는 灰같은 것을 바른 痕蹟이 없으며 石間에도 目地를 하지 않고 얇은 割石을 끼워서 틈을 메웠다.

石室의 規模는 대단히 작고 手法도 疏略하나 構造樣式은 扶餘地方에서 자주 發見되는 平斜天井式石室이며 단지 잘 다듬은 板石을 使用하지 않고 自然石을 使用하였을 뿐이다.

石室內에 副葬되었던 遺物은 모두 一三點으로 土器壺 土器蓋 土器小壺 鐵製고리 鐵釘 等인데 이미 發見者들에 依하여 攪亂, 引出되어 遺物의 配置狀態나 狀況을 알 길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個個 遺物에 對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① 土器壺 一點(圖3、4)

口緣部가 喇叭形으로 外反하고 頭部가 짧으며 器身은 거의 球形에 가깝다. 胎土는 比較的 精選된 것을 使用하였으며 黑色의 硬質이다. 器肩은 短頸에 比해 갑자기 擴張되었으며 器底는 平底이다. 器身에는 燒成時 壁中에 空氣가 들어가 부풀어 혹모양이 된 黑心作用②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器表는 無文黑灰色인데 이러한 土器는 扶餘地方에서 자주 發見되는 것이며 百濟時代의 거의 末期에 該當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器高 三一cm 口徑一五·六cm 最大腹徑 二七·六cm底徑 一四cm 두께 六6mm

② 土器小甁 一點(圖3、4)

器身은 球形이며 頸部는 짧으나 分明하게 直立하고 그 위에서 口緣部가 옆으로 擴大되어 比較的 廣口이며 口唇은 다시 위로 치켜 세웠다. 器底는 平面을 이루고 있고 精選된 胎土를 使用하여 高熱에 燒成한 硬質土器로 黑灰色無文이다. 이러한 器形도 亦是 扶餘 地方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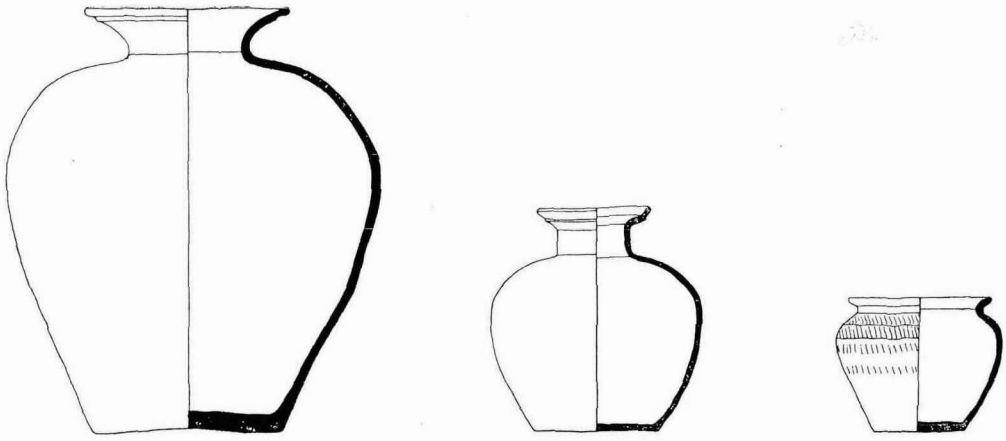


圖 3. 論山 六谷里 土器

器高 一六·二cm 口徑 八·四cm 頸長 二cm 底徑 八·八cm 最大腹徑 一五·六cm 두께 四mm

③ **土器小壺 一點(圖 3、4)**

廣口이며 口緣部는 外反하고 짧으며 頸部는 거의 省略되어 ∨形으로 들어간 形狀이며 器身은 梯形을 倒置하여 놓은 것 처럼 보이며 器底는 口徑보다 훨씬 좁은 平底이다。 器肩에는 二條의 陰刻線을 不整하게 둘렀고 이 二條의 帶線을 包含한 器腹에는 細線의 자리文이 施文되어 있다。 器表面과 內面은 고르지 못하고 있어서 轆轤를 使用하지 않고 그대로 손으로 빚어서 만든 듯하며 特히 內面을 살펴 보면 二段의 파여진 細線이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도 成形時 三部分으로 만들어서 붙여 올라간 痕蹟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③ 胎土는 比較的 精選된 것을 使用하였으며 軟質에 가까운 灰色土器이다。 이런 土器도 亦是 扶餘地方에서 더러 보이는데 器形은 오히려 先史時代의 無文土器形을 닮았다。

器高 九·八cm 口徑 一一·四cm 底徑 四·八cm 最大腹徑 一二cm 두께 四mm

④ **土器蓋 其一 五點(圖 4、5)**

이 土器는 얼른 보아서 蓋인지 접시인지 잘 區分하기가 어렵게 생긴 것인데 器天은 약간 불룩하게만 올라와 있을 뿐 鈕나 또는 굽같은 것이 없다。 蓋身(굽같이 내려와 덮을 때 아래 그릇을 가리게 된 것)은 짧게 垂直하였으며 아무런 文樣이나 附着物이 없이 單調롭게 되었다。

灰色에다 硬質에 가까우며 精選된 胎土를 쓴 듯 하다。 盖의 크기는 五點이 약간씩 差異가 있으나 大同小異하며 其中 一個의 크기는 高 三cm 口徑 一·二六cm 두께 四mm

⑤ **土器蓋 其二 四點(圖 4、5)**

이 蓋들도 前記의 것과 같이 鈕같은 付着物이 없는 것은 同一하나 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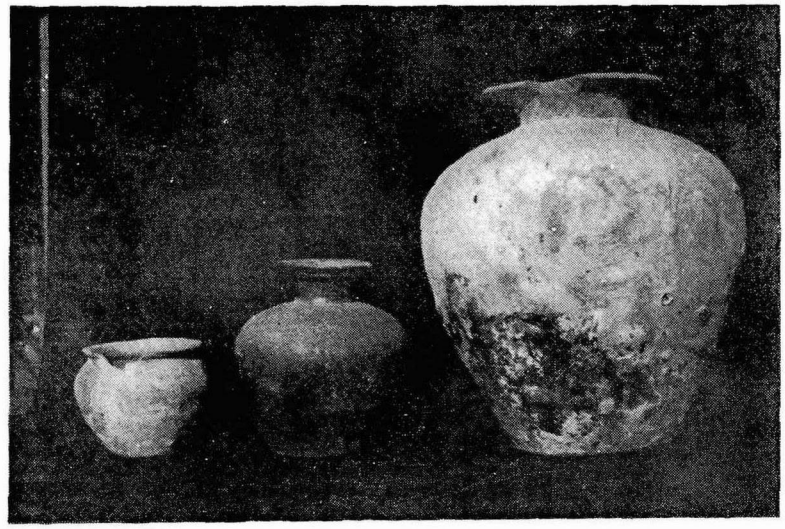


圖 4. 論山 六谷里 出土 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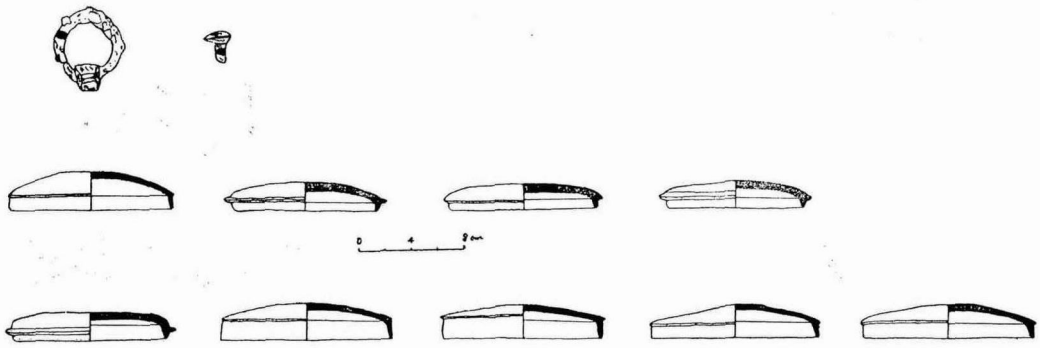


圖 5. 論山 六谷里 出土品

邊周가 ㄱ로 생겨서 뚜껑을 덮을 때 아래 그릇의 口緣部 안으로 들어가 맞도록 되어 있는 點이 다르다。胎土는 精選된 것을 使用한 黑灰色의 硬質이다。이것도 크기는 약간씩 다르나 其中 一個의 크기는 器高 二㎝ 口徑 一一㎝ 두께 五㎜。

그런데 前記한 蓋와 함께 모두 九點이 있는데 이 蓋들이 덮어져야 할 원 土器는 하나도 發見되지 않은 點이 異常하다면 異常하다。發見者들이 引出해 낼 때 破損하고 蓋만을 申告하였는지 모르며 그렇지 않으면 蓋 九點만을 玄室內의 어느 地點에 늘어 놓아 다른 用途로 使用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⑥ 鐵製고리 一點 (圖5)

이 鐵製고리는 마치 韓屋의 문에 많이 使用하는 문고리 같이 생겼는데 腐蝕이 甚하고 棺에 박아서 드는데 使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리徑 六㎝ 박는 部分의 길이 五㎝ 고리原徑 八㎜

⑦ 鐵釘 二點 (圖5)

머리가 크고 넓적하게 생겼으며 釘身은 四角形이며 中切되었다。鐵製고리와 함께 玄室內에서 發見된 點으로 보아 木棺에 使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現存長 二一·六㎝ 두께 八㎜

이 古墳은 前述한 바와 같이 百濟時代의 末期에 나타나는 平斜天井式石室墳으로 根本的으로 扶餘地方의 板石을 써서 造營한 平斜天井式(凵)과 通하는 것이며 但只 扶餘地方과는 달리 잘 다듬은 板石을 使用하지 않고 自然石으로 簡略하게 造營한 點이 다르다。그것은 古墳所在地가 當時 首都인 扶餘에서 40㎞나 떨어진 地方인 點으로 보아 當然하며 따라서 主人公도 一般庶民이 아닌가 생각된다。特히 이와 같은 構造樣式을 가진 石室墳이 「단두리」재에 數十基가 密集하였었다는 것은 더욱 그러한 心證을 굳게 한다。또한 平斜天井式石室墳은 扶餘郡內에서만 發見되었으나 一九七二年 二月 公州郡 灘川面 松鶴里에서 一基가 發見되고 다시 이번 論山에서 發見되어 그 分布地域이 漸次 擴大되고 있으며 이 論山 六谷里의 것은 扶餘를 中心으로 하여 錦江流域에서는 最南邊의 것으로 생각된다。

註

① 百濟古墳에서 平斜天井式石室은 天井과 兩長壁의 斷面이 凵形으로 생긴 것으로 筆者가 처음 말하는 것이고 이에 關하여는 따로 發表할 機會를 갖겠다。

② 金元龍:「華城郡 麻道面 白谷里 百濟古墳과 土器類」百濟文化 第二집 P. 194 忠南大學校 博物館 1971

③ 金元龍:前揭論文 P.151